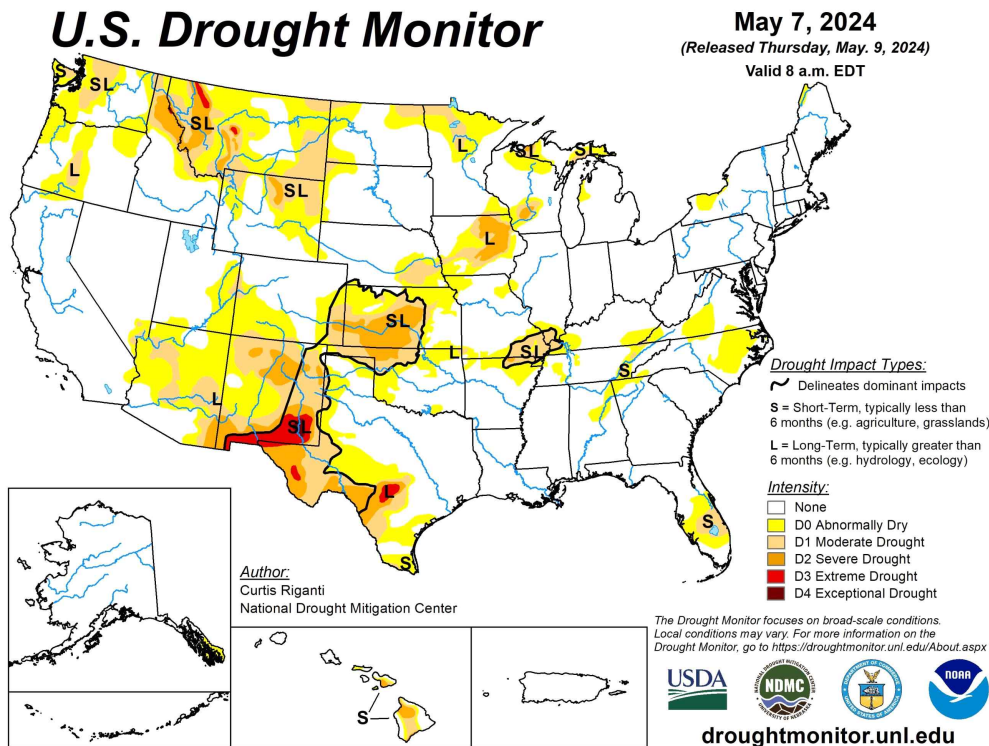


5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20)

□ 미국 기후 현황(5/5-5/11)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또 다른 주요 악천후의 발생이 5월 6-9일 기간에 정점에 이르러 평원, 중서부 및 남부 지역에 걸쳐서 150개의 토네이도가 기록되었다. 가장 최근 있었던 타격 기간 중에는 사망자를 낸 두 건의 토네이도가 각각 오클라호마 주 오세이지 카운티 (5월 6일)와 테네시 주 마우리 카운티 (5월 8일)에서 발생했다. 또 그 뇌우들은 산발적인 큰 우박과 파괴적인 바람을 일으켜 농작물과 농업 인프라에 국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우량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는 했으나 다량의 비 (2-4인치 이상)가 내린 지역들에서는 돌발 홍수가 많이 관측되었다. 또한 동부 전역에서는 잦은 소나기 때문에 파종 속도가 계속해서 느리다. 더 서쪽으로 고원 북부 전역에서는 일상적이지 않게 내린 폭우 (국지적으로 2인치 이상)로 인해 야외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건조한 상태가 완화되거나 해소되었다. 일부 소나기가 북서부까지 확장되었다. 하지만 중앙 고원의 일부와 주변을 가로질러 좋지 못한 건조함이 지속되어 겨울밀과 출현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리오그란데 계곡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남부 대부분 그리고 몬태나 북동부에서부터 미네소타 북서부까지의 캐나다 국경을 따라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역들 등 여러 지역에서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대조적으로 대분지에서부터 로키산맥 중앙부까지는 수치가 대체로 평년보다 평균 5-10° F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5/6-5/12)

5월 12일에 끝나는 주간에는 플로리다 남부 대부분, 루이지애나 해안부, 태평양 북서부, 중앙 평원 그리고 남서부는 계속 건조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 대부분과 테네시 계곡은,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북부 평원 및 로키산맥의 일부와 아울러,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해당 주간 켄터키와 테네시의 여러 곳들에서는 6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국내 동부와 중부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을 기록했다. 미네소타와 텍사스에 있는 여러 곳들은 평년보다 9°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서부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선선했다. 대분지와 로키산맥 중앙부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5/5-5/11)

#### ■ 유럽:

유럽 북서부에서 유리하게 건조했던 날씨가 대륙의 서부, 중부 및 남동부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로 바뀌었다. 프랑스 북부와 영국 남동부에서는 가을부터 평년보다 습한 상태가 지속되어 야외 작업을 방해했고 겨울 작물의 상태를 저하시켰다; 결과적으로 대체로 맑았던 지난주의 하늘은, 5월 13일 이들 주요 경작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반가운 유예를 가져다주었다. 반대로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서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그리스와 발칸반도까지 광범위한 소나기들 (10-50 mm)이 보통 내지 심한 수준으로 계속 내려서 다뉴브 강 계곡 하류에서는 토양 수분을 개선했으나 야외 작업은 더욱 방해했고 프랑스 남쪽 3분의 2 지역과 서독에서는 작물 품질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여 여름작물과 봄 곡물의 늦은 파종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도 소나기가 지속되어 (5-50 mm) 다년간의 가뭄을 더욱 완화했고 겨울 곡물과 여름작물의 전망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영국 북부 (평년보다 최대 5° C 높음)와 발트해 국가들 (평년보다 최대 5° C 낮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해당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1-3° C 높았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서부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심한 결빙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남서부까지 가뭄을 심화시켰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기온은 흑해 경작지의 동부 전역에서 평년보다 평균 1-3° C 낮았으나 러시아의 중앙 및 북부 재배지역에서는 평년보다 5-9° C 낮았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심한 결빙 (-7~-2° C)은 최근에 출현한 여름작물들에게, 아울러 러시아 중서부 대부분에서 중간 내지 후기 마디 단계에 있는 겨울 밀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더 많은 정보는 이번 주 공보의 39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가벼운 소나기가 고립적으로 내렸으나 (1-9 mm)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남서부까지의 가뭄을 거의 또는 전혀 해소 해주지 못했다. 건조함은 러시아의 남부 지방에서 가장 두드러져 현재까지의 계절별 총강수량 (3월 1일 이후)은 불고그라드에서 평년의 37 퍼센트, 로스토프에서 평년의 31 퍼센트, 크라스노다르크라이에서 평년의 38 퍼센트였다. 그런 건조함과 단기 가뭄 지역 중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3분의 1 부분도 포함되었는데 이 지역은 분쟁과 그에 따른 작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미 겪은 지역이다. 전반적으로 건조하고 아주 추운 날씨 패턴이었지만 러시아의 최남단 부분 (2-25 mm)에서부터 서쪽으로 몰도바 (5-15 mm),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부 (2-15 mm), 벨로루시 (5-30 mm) 및 러시아 북서부 (10-45 mm)까지 그 지역의 밀 지대 주변을 따라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들이 내렸다.

■ 동아시아:

해당 기간 후반에 소나기 날씨가 중국 북동부를 통과하여 움직이면서 어떤 곳들에서는 25 mm를 넘어갔다.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함 (평균보다 1-2° C 높음)에 더하여 그 수분은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을 장려했다. 한편 남쪽과 남서쪽으로 열대 습기가 꾸준히 흘러 들어와 50 mm가 넘는 비를 만들어내어 생식기에 들어가고 있는 조생벼에게 도움이 되었다. 날씨가 습한 다른 곳들과 달리 화북평원은 평균 이상의 기온과 함께 대체로 건조하여 밀의 성숙을 촉진했다. 서쪽으로 신장에서는 스트레스성 더위 없이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기온 (평균보다 최대 6° C 높음)이 관개 면화의 활착에 도움이 되었다. 그밖에 한반도와 일본 전역에는 폭우 (국지적으로 100 mm 가량)가 내려서 얼마의 홍수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여름 재배기가 시작할 때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확보해주었다.

## ■ 호주:

서호주 밀 지대 남쪽 일부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 (5-1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겨울 작물 파종과 초기 발달에 맞게 표토의 상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남호주와 빅토리아 서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최근에 심은 겨울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발아와 출현을 더욱 방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건파가 계속되었는데 토양 수분을 개선하고 이어서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려면 비가 필요하다. 밀 지대 내 다른 곳을 보면 빅토리아 동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대부분은 광범위한 소나기 (10-50 mm 이상)로 덮였다. 그 비가 발아 중이거나 출현 중인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해주었으나 그 습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추가 파종과 여름작물의 수확 등 지역의 야외 작업 속도를 늦추었다.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소규모 건조한 날씨가 면화와 수수의 수확 및 겨울작물 파종을 도왔고 한편 맑은 하늘은 초겨울 곡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기온은 호주 서부와 동부에서 평년보다 평균 1-2° C 높았고 남호주와 빅토리아 서부에서는 평년 부근이었다. 호주 남부와 동부에서는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20도 초중반대였으나 서호주에서는 최고 기온이 약간 더 높았다.

## ■ 아르헨티나:

조건들은 여름 곡물들, 유지작물 및 면화의 수확 등 계절 야외 작업에 일반적으로 유리했다. 엔트레리오스와 그 주변에는 보통 내지 심한 비 (10-50 mm)가 내렸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보다 적은 양이 내렸다 (2-15 mm); 그 외의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1-10 mm의 범위를 보였다. 주간 평균 기온은 남서부 농업 지역들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부터 산티아고델에스테로까지)에서 평년보다 1-3° C 낮은 데서 북동부 (차코와 포모사 포함)에서는 평년보다 4° C 높은 데까지의 수치 범위를 보였다. 남서부 생산 지역들에서 결빙은 흔했으며 코르도바처럼 먼 북쪽에서는 야간 저온이 0° C에 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9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29 및 48 퍼센트 수확되었고 면화는 18 퍼센트 수확되었다.

## ■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계속되는 소나기로 홍수 복구 노력이 둔화되었다. 주 전체에서 총 강우량이 10 mm에서 국지적으로 100 mm를 넘어갔고 해안 근처에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5월 9일 현재 대두와 옥수수는 각각 78 및 83 퍼센트 수확되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피해를 입은 작물들의 품질과 양 모두에 대한 피해의 초기 설명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피해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그 밖의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북동부 해안을 따라 계절 소나기 (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만연했다. 중부 및 북동부 생산 지역들에서는 건기 동안의 전형인 일조와 따뜻함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중반에 달함)이 옥수수와 면화의 발달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파라나에서는 그 건조함이 계절에 맞지 않았고 비가 더 내리는 것이 미성숙한 농작물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6일 현재 2기작 옥수수의 85 퍼센트가 개화 내지 종실 비대 중이었고 밀 (27 퍼센트 파종)은 출현 중이었다.